

교육공무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업무 담당자 100여 명 참여, 정책·사례 공유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2026년 교육공무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무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노사관계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로 분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 인사·임금 등 핵심 정책 이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사례 중심 교육 ▲지역별 사례 공유 ▲현안 사항 관련 분임 토의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간 사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의 현장 경험을 나눈다. 분임 토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전보와 복무 관리, 급여, 노무관리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담당자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2026 하남 봄봄 문화축제' 4일 개막

'2026 하남 봄봄 문화축제'가 오는 4월 4일 당정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신장2동 주민자치회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하남지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하남시가 후원한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시민과 방문객들은 당정뜰에서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1부 공연에서는 신장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팀을 비롯해 사계절 힐링뮤즈 색소포니스트, 나누리문화예술단, 고운소리 하모니카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대중가수 나휘, 안가희, 비니썸, 슬기가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공연에서는 우순실, 김신, 김장수 등 유명 대중가수와 정남훈, 박철리, 시니어모델워킹 더봄, 봄바람 하모니, 하남시립합창단, 송시연 고고장구 등 다양한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2026 하남 봄봄 문화축제'는 공연과 체험, 봄꽃 경관이 어우러진 도심형 문화축제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주택 전월세 계약 안심동행 서비스

파주시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전월세 계약 안심동행 서비스(이하 '안심동행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최근 들어 이른바 '강동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계약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안심동행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안

심동행 매니저'로 지정, 주택 탐색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월세 거래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매물 현장 주택 상태 점검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 계약거래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이하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외국인 등이며 이용 요금은 무료다. 신청은 파주시 부동산과 방문 또는 전화, 전자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중·고생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안성시는 관내 11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며 시비와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안성 로컬푸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이며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11개교가 선정됐다. 대상 학교는 서운중, 만정중, 양성중, 안성고, 안성여고, 두원공고, 죽산중·고, 일죽중·고, 경기창조고 등이다. 제공되는 간편식은 HACCP 인증을 받은 지역 업체가 생산하며, 안성 쌀과 로컬 농산물을 활용한 빵과 떡, 주먹밥, 과체 음료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특례시, 중소제조기업 국외 안전인증 취득 지원

수원특례시가 관내 중소기업이 국외 안전인증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4일까지 '2026년 국외 규격 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창업·중소·제조기업 8개 업체를 모집한다.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의 80%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기업당 440만 원이다. 지원 분야는 미국 안전인증(UL·FCC·FDA), 유럽 안전인증(CE) 등 436개 규격이다. 제품안전인

증 아닌 아이에스오(ISO) 인증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찰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일부터 24일까지 전자우편(jiwoc68@korea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제조기업에게는 국외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수출 장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쉽지 않다"며 "기업이 교역 대상국의 안전 규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외 안전인증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H, 31조 재정 기반 '더 많고 빠른' 주택공급 본격화

2일 'GH Bridge 2030 행동계획' 발표...속도·물량·품질 아우르는 주택공급 전략

공사채 제도 개선으로 자원 확보...패스트트랙 도입·2만호 추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고, 더 빠른' 주택공급에 본격 나선다. 제도 개선으로 확보한 31조 원 규모의 재정 여력을 기반으로 공급 확대와 속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GH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주택·도시 정책의 중장기 비전인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2-3년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책 실행 속도와 체감도를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자원조달 구조 개선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제도 개정으로 GH는 2030년까지 31조 원 이상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사적 컨트론타워 구축과 현장 중심 조직 운영을 강화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GH형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 선행 절차를 병렬 추진하고, 인접 인프라를 임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하남교산 등 5개 지구 약 7천 호는 입



주 시점을 평균 1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공급 물량도 기존 5만 호에서 복수원 테크노밸리, 화성진안 등을 포함해 약 2만 호 이상 추가 확대된다.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강화된다. 지역 데이터와 인구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약 3만 호 규모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은 연간 1천 호 수준으로 확대해 공사 기간을 최대 30% 단축한다.

도시 개발 방식 역시 변화한다. 일자리·주거·여가가 결합된 '경기도형 기회타운'을 확산해 자족형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경험을 복수원, 용인, 안

양 등 주요 사업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을 광고신도시에선 올해 하반기 첫 공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약 1천 호씩 확대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31조 원 규모의 재정 기반을 확보한 만큼 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을 본격 가속할 준비를 마쳤다"며 "착공과 입주 등 가시적 성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경콘진, '디자인 솔루션 랩 인턴십' 기업·청년 디자이너 모집

기업 20개사·청년 디자이너 30명 선발...인건비 최대 2개월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도내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청년 디자이너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2026 디자인 솔루션 랩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에 인턴 디자이너를 연결하여 참여 기업에는 실질적인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청년 디자이너에게는 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의 기업으로 총

20개 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를 월 250만 원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지원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 디자이너는 경기도 북부 권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 관련 전공자 또는 실무 경험 보유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총 30명을 선발해 2개월간의 근무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업과 디자이너를 동시에 모집한 뒤 선정된 기업이 '디자이너 풀(Pool)'을 기반으로 직접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

력을 배치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디자인 솔루션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턴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선발된 디자이너는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배치되며 이후 성과 공유회, 모의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디자인 솔루션 랩은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과 청년의 취업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상생 모델'이라며, "도내 기업과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벚꽃 구경 멀리 갈 이유 없다, 광주에 다 있으니



볼 수 없는 광주만의 장면이다.

남종면 귀여리에서 수철리까지 337만 지방도 12km를 따라 3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팔당호 수변을 분홍빛으로 채운다. 경기도가 선정한 5대 벚꽃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강바람·꽃향기·호수 반영이 동시에 펼쳐지는 코스다. 하변관리에서 서하리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완전한 꽃 터널을 만들어낸다.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 창밖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최적의 코스다.

유명 벚꽃 명소로 인산인해라면, 곤지암전은 정반대다. 곤지암전 일대

는 산책과 드라이브 모두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유명해 조용하게 벚꽃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제격인 명소다. 하천변 벚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경기도자박물관과 곤지암 시내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꽃구경과 문화 탐방을 함께 즐길 수 있다.

LG상록재단이 조성한 화담숲은 4천여 종의 식물이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산자락을 채우는 생태 수목원으로, 5.3km 전 구간이 완만하게 설계돼 유모차와 휠체어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송민수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

'찾아가는 안전점검'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까지 직접 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안전행정을 펼치고 있다.

효행구 도시건축과는 지난 3월 말 관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시건축과장과 담당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축허가 사항 준수 여부 ▲추락 및 낙하 방지 조치 ▲토공사 안전관리 ▲가설구조물 및 자재 관리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추락방지망 설치와 토사유출방지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며, 후속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효행구는 앞으로도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지도도를 실시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갑 효행구 도시건축과장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4월 성남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500억원에서 1500억원 늘린 3650억원으로 확대하며, 이에 필요한 활성화기금 예산 367억원은 추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지류 상품권은 4월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은 4월 6일 오전 6시부터 발행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할인율은 기존보다 확대된 10%가 적용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지역 내 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지역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5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척(chak)'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 등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군포시, 김경일 아주대 교수

초청 공직자 특강 개최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4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표 인지심리학자인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바쁜 행정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삶의 질과 행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조직 내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청 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김경일 교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복의 본질과 삶의 동기를 이해하는 방법을 쉽고 유쾌한 사례를 통해 전달하며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은 공직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사례와 재미 있는 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웃음과 공감을 오가며 강연에 몰입하는 등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시민에게도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